

## 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의 의미

박형우\*

- I. 서론
- II. ‘象形’의 의미
- III. ‘古篆’의 의미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訓民正音 창제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象形而字倣古篆’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해석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관련 내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象形’과 ‘字倣古篆’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각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이를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訓民正音에서 언급하고 있는 ‘象形’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문자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象形’의 의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訓民正音에서의 ‘象形’은 ‘일정한 사물의 모양을 본뜨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둘째, ‘字倣古篆’에서 ‘古篆’은 중국의 書體 중 小篆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특성은 획의 굵기가 일정하다는 점이다. 결국 ‘字倣古篆’은 訓民正音 制字와 관련하여 書體의 관련성을 언급한 단편적인 논의에 불과하다.

셋째, 訓民正音에서 언급한 加劃, 竝書, 連書, 合用의 자형 구성 방법은 소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형의 복합을 통한 새로운 자형 구성 방식과 관련된 중국의 문자학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訓民正音, 制字 원리, 象形, 古篆, 象形而字倣古篆

## I. 서론

1940년에 ‘訓民正音’ 解例本이 발견되면서 訓民正音이라는 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한 논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견해가 이미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訓民正音 解例本 이외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들은 訓民正音 관련 자료의 해석에 충실하기 보다는 대부분 중국의 문자학이나 음양오행 등의 외부 원리의 원용이라는 측면에서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象形而字倣古篆’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象形而字倣古篆’의 해석 문제는 본질적으로 訓民正音 창제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訓民正音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기원설은 대부분 ‘象形而字倣古篆’의 해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관련 내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象形과 ‘字做古篆’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각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象形’의 의미

俞昌均(1966: 571~572)에서는 “訓民正音이 象形文字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事實이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訓民正音이 象形文字라 하더라도 構造的으로 이들 諸文字와 다른 바 있다고 하면, 그 理由는 對象物 選擇의 基準과 象形의 方法的 差異에서 求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김슬옹(2005: 106)에서는 한글이 상형문자인가에 대해서 “굳이 문자 범주에 따른 이점을 붙인다면 訓民正音도 상형문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한글을 “상형문자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렇다고 상형문자가 아니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라는 명확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다.

과연 한글은 상형문자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상형문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象形’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이미 許慎의 ‘說文解字’와 鄭樵의 ‘六書略’에 언급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나타난 ‘象形’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㉞ 상형이란 어느 물체를 그려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물체의

모양에 따라 꾸불꾸불 그려냈으니, ‘일(日)’과 ‘월(月)’이 그 예이다(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 - 金權 역(1994: 88)에서 재인용.

㉞ 육서라는 것은 상형이 근본이며, 상형의 종류에는 天地之形, 山川之形, 井邑之形, 草木之形, 人物之形, 鳥獸之形, 蟲魚之形, 鬼物之形, 器用之形, 服飾之形을 상형한 것 등 10종이 있다(육서 서). - 姜信沆(2003: 38)에서 재인용

이상의 설명을 살펴보면 ‘象形’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나타낸 글자 간의 상관관계가 시각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확대되어 그 글자가 관련된 다른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sup>1)</sup>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象形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시각적 유사성을 전제로 한다. 즉 대상과 문자 기호의 관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의 유사성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다.

‘象形’에 대한 訓民正音 자체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㉞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㉞ 正音制字尙其象 (중략) 中聲十一亦取象 -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訣  
 ㉞ 象形而字做古篆 - 訓民正音 解例本 鄭麟趾序

‘象形’과 관련이 있는 制字解나 鄭麟趾序의 기록을 보면 ‘象形’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자음자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正音二十八字’ 전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象形’은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의 경우도 아우르는 제자의 원리인 것이다.<sup>2)</sup> 訓民正音은 원래 제

1) 이정민 외(1987: 388)에서 ‘상형문자’에 대해 “그림과 유사한 기호들로 이루어지는 문자체계. 이러한 기호들이 가리키는 사물에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2) ‘象形’은 기본자에만 해당될 뿐 그 외의 문자에서는 象形의 원리가 적용되

자 당시부터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 문자가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각 문자가 나타내는 대상은 각각 자음과 모음이 된다. 그리고 訓民正音 解例本에 따르면 자음은 그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의 경우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制字解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㉞)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齶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ㅈ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ㅋ比ㄱ 聲出稍踈 故加畫 ㄴ而ㄷ ㄷ而ㅌ ㅌ而ㅍ ㅍ而ㅂ ㅂ而ㅅ ㅅ而ㅆ ㅆ而ㅈ ㅇ而ㅊ ㅊ而ㅌ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爲異 半舌音ㄹ 半齒音ㅊ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㉟) 中聲凡十一字 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乎天也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關於丑也 形之平 象乎地也 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形之立 象乎人也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象形이라 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문자가 시각적 관계를 보여야 하는데 訓民正音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자가 지시하는 대상은 당연히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 具象的인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訓民正音의 경우에는 그 자모가 나타내는 것이 일단 具體的인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訓民正音의 경우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자음과 모음, 즉 소리인데 형태가 없는 소리와 자모의 형태 사이의 관계가 시각적 유사성으

지 않았고 기본자에 ‘加劃, 並書, 連書, 合用’의 방식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자는 모든 訓民正音의 자음과 모음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체자로 불리는 ‘ㄹ, ㅊ, ㅇ’의 경우에도 기본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모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象形의 원리가 적용된 글자가 기본자 이외의 글자를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象形’의 원리는 訓民正音 28자에 모두 해당되는 원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로 맺어지지 않는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시각적으로 기호화 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즉 소리는 시각화가 가능한 구체적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소리의 시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와 가장 관련이 있는 대상을 지정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자에서 ‘象形’으로 분류되는 글자들에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대상을 의미하는 한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빌려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한자들(力, 土, 立, 白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음자의 경우에는 일부 ‘象形’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다시 모음자에서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논리로도 모음자의 경우는 ‘象形’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음자의 경우에는 그 자형과 모음의 소리 관계가 자음보다도 더 멀어 ‘하늘, 땅, 사람’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시각화하기는 했으나 모음 자체와는 모음의 자형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sup>4)</sup> 그러므로 訓民正音의 자모 전체를

- 3) 대표적인 상형문자라 할 수 있는 이집트 문자의 경우에도 모음은 상형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음의 경우에도 그림문자에서 발전하여 결국에는 자음기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자음은 본래 象形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였다. 그런데 訓民正音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ㄱ, ㄴ, ㄷ, ㅈ, ㅇ’의 경우 訓民正音의 자모로만 사용될 뿐 그 象形의 대상이 된 ‘혀뿌리, 혀, 입, 이, 목구멍’ 등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인 경우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訓民正音을 단순히 象形에 의해 제작된 문자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 4) 모음의 자형에 대해 그 음소적 특징과 관련하여 논의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최현배(1982: 630)에서는 홀소리의 자형과 그 소리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는 입안의 복판에서 나는 것이므로, 그 끝이 가로도 아니요 세로도 아니다. 또 ·의 소리는 모서리(主角)가 나지 아니하여 푹푹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모난 소리들로 피어날 킷머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끝이 겨우 붓을 댄 정도의 점으로 되어, 아직 획으로 번지지 못하였으니, “訓民正音”은 가운소리의 자리에서 ·가 첫자리를 잡은 것도 이러한 뜻이 있다. 一는, 소리낼 적에, 혀가 평평하고 입을 좌우로 켜는 맛이 있으므로, 가로획으로 그 끝을 삼았다. 丨는, 소리낼 적에, 혀가

‘六書’와 관련된 ‘象形’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음소문자인 訓民正音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象形の 원리에 의한 문자 제작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형문자’의 경우에는 음소문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한자’와 같이 소리와 의미로 분리가 가능한 표의문자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이다. 표의문자의 경우 그 소리는 자의적 특성에 의해 선택되지만 그 의미는 그 문자가 갖고 있는 형상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訓民正音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訓民正音은 소리와 의미로 분화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訓民正音은 음소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미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訓民正音이 최소한 상형문자라고 한다면 訓民正音의 낱글자가 나타내는 시각적 특성이 그 소리와 관련이 있어야 하나 소리를 시각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설정은 문제가 있다. 혹 자음의 경우만을 예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음도 실제로 문자의 형상적 특성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나타낼 뿐 그 음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舌附上齶之形’이라는 ‘ㄴ’의 경우에는 그 모양이 형상적으로 혀가 ‘ㄴ’자처럼 구부러져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구부러진 혀의 모양이 음소인 /ㄴ/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형상과 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ㄴ’과 같은 모양이 혀가 구부러진 것을 상징하는 형상이라면, 상형문자에서 그 의미는 소리 자체뿐만 아니라 최소한 ‘혀가 구부러졌다’와도 관련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해야 한다. 모음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확실해진다. 모음의 경우에는 ‘天地人’의 三才의 형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형문자’나 ‘六書’에서 논의하는

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맛이 있으므로, 세로획(縱畫)으로 그 꼴을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象形’과는 더욱 더 거리가 멀다. ‘하늘, 땅, 사람’이 각각 /ㅇ/, /ㅡ/, /ㅣ/의 소리값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발음기관의 모양도 아니며 소리와 관련된 어떠한 형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모음의 경우에는 아무리 ‘상형문자’나 ‘六書’의 ‘象形’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도 ‘象形’이라는 설명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訓民正音에서 ‘象形’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訓民正音에서 언급하고 있는 ‘象’은 ‘본뜨다, 모방하다, 그러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形’의 경우에는 ‘모양, 형상’ 등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외형적 모양을 나타낸다. 그런데 訓民正音의 자음자와 관련한 발음기관은 자음 자체가 아니며 모음자의 하늘, 땅, 사람도 모음 자체가 아니다. 단지 이때 ‘象形’의 의미는 어떠한 모양을 본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뜬 모양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입 모양, 이 모양, 목구멍 모양, 하늘 모양, 땅 모양, 사람 모양’ 등이다. 이러한 해석은 중성의 음가에 대한 설명과 그 문자의 모양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기관 상형설과 관련이 없는 모음까지 포함하여 28자가 각각 그 모양을 본떴다는 표현을 制字解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訓民正音 解例本의 ‘象形’ 관련 설명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단지 어떠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그 모양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결국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언급하고 있는 ‘象形’ 관련 내용은 단순히 ‘어떠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의미일 뿐, ‘상형문자’나 六書에서 말하는 ‘象形’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訓民正音의 기원에 대하여 ‘발음기관 상형설’을 주장하는 것은 자음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모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訓民正音 전체에 대한 기원설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안명철(2006)에서는 訓民正音 制字 원리와 六書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자음의 기본자만을 ‘象形의 원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를 고려한다면 ‘象形’은 六書의 원리나 상형문자와 관련된 ‘象形’은 아니다. 그래서 ‘六書’의 원리와 관련된 ‘象形’을 협의의 ‘象形’이라 한다면, 訓民正音에서 언급하고 있는 ‘象形’은 모양을 본뜬다는 광의의 ‘象形’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象形’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만 정인지 서문에 등장하는 “象形而字做古篆”이라는 어구의 해석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이때 ‘象形’을 六書의 象形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경우 ‘字做古篆’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인지 서문에서 언급한 ‘象形’이 六書의 원리 중 ‘象形’과 같은 협의의 ‘象形’이라면 자모에 대한 제자의 원리는 밝히지 못한 셈이 되며, 뒤이어 언급된 ‘字做古篆’에서 ‘古篆’이 ‘상형문자’와 관련된 ‘古篆’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러한 서술은 자체적으로 모순이 된다. 물론 ‘字做古篆’에 대해 ‘象形’의 원리가 적용된 글자 이외의 다른 글자에 적용된 원리로 설명하는 방법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象形’은 訓民正音 28자에 적용된 원리이기 때문에 ‘字做古篆’이 적용된 글자가 달리 존재할 것이라는 설명을 수긍하기가 어렵다.

訓民正音의 제자 과정을 ‘六書’의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象形’보다는 오히려 ‘指事’로 설명이 가능하다. ‘指事’에 대한 설명을 許慎의 ‘說文解字’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지사라는 것은 글자의 형체를 보면 곧 알 수 있고 관찰을 통하여 분석하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문자로서, ‘상(上)’과 ‘하(下)’가 그 예이다(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 - 金權 역(1994: 88)에서 재인용.

‘指事’는 ‘象形’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을 시각적 형태에 따라 본뜬 것이 ‘象形’의 방법이라면,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 그 특징에 따라 형상적 기호를 택한 것이 ‘指事’이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개념에 속하는 음소를 표현하는 음소문자인 訓民正音의 경우 그 자형과 표현 대상인 음소의 관계를 六書의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象形’이 아니라 ‘指事’로 보아야 할 것이다. 孔在鏞(1967: 49)과 문효근(1993: 260)에서도 訓民正音의 ‘象形’은 六書의 ‘象形’보다는 ‘指事’에 가까운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sup>5)</sup> 또한 안명철(2005: 50)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象形’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모음에 대해서는 “발음기관의 상형은 엄밀히 말하면 음가에 대한 환유적인 기호법이 된다.”라고 하면서 “‘天’과 ‘地’와 ‘人’을 모방하여 각각 ‘·’와 ‘一’와 ‘丨’와 같은 문자꼴을 만들어 낸 과정만큼은 철저히 상형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김주필(2005: 77~78)에서도 “訓民正音의 중성자는 ‘사물을 그린 형태’가 의미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본래의 상형과는 차이가 있다. (중략) 그러므로 訓民正音의 상형은 추출된 국어 음소에 대응되는 문자의 도형을 만드는 방법으로써, 일반적인 상형의 制字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象形’의 원리로 制字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부정하거나 협의의 ‘象形’보다는 광의의 ‘象形’으로 보아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음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현대 음운 이론에서도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訓民正音 制字 원리를 굳이 六書의 원리로 설명하자면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의 모양을 빌려 글자를 제작하는 방식인 ‘指事’가 더 적확

5) 특히 孔在鏞(1967:54)에서는 訓民正音에 대하여 상형문자보다는 상성문자(象聲文字)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 표현이다. 결국 訓民正音에서 ‘象形’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오히려 ‘六書’의 원리를 바탕으로 訓民正音이 制字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일정한 구체적 형상을 빌려 訓民正音의 자모를 만들었다고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 III. ‘古篆’의 의미

訓民正音 기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내용 중의 하나가 ‘古篆’이나 ‘篆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訓民正音 창제 당시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㉞) 是月上親製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2월조

(㉞) 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 최만리 등의 상소

(2다)의 기록을 포함하여 ‘古篆’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象形’과 관련하여 ‘古篆’에 대한 내용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자를 제작하는 원리를 밝히는 경우에 제시된 원리가 서로 상충한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訓民正音의 경우 정인지 서문에 등장하는 ‘象形而字倣古篆’이라는 기록에서 ‘象形’과 ‘字倣古篆’을 그대로 해석하면 양립할 수 있는 원리로 보기 어렵다. ‘象形’에 대해 문자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해석하고, ‘字倣古篆’의 경우에는 글자는 ‘古篆’을 본뜬다고 해석하면 이 두 원리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글자를 본뜨는 방법이 모양과 관련된 것이고, 그 모양은 古篆과 관련된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명의 가능성

이 있다. 첫째, ‘象形’과 ‘字倣古篆’의 ‘古篆’이 서로 유사하거나 서로 연관이 있는 원리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 ‘象形而字倣古篆’이라는 말은 하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살펴보면 정인지 서문에 나오는 ‘字倣古篆’의 내용은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 다만 최만리 등의 상소문에서는 ‘字倣古篆’ 대신에 ‘字形雖倣古之篆文’이라는 언급이 나타날 뿐이다. ‘象形’의 경우 制字解 등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字倣古篆’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象形’과 ‘字倣古篆’이 두 가지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sup>6)</sup> 둘째로는 이 두 내용을 다른 원리로 보되, 각각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자의 차원을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象形’도 訓民正音 28자에 적용되고, ‘字倣古篆’ 또한 訓民正音 28자에 적용되는 원리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정인지의 서문을 제외하고는 ‘字倣古篆’ 관련 내용이 언급된 바가 없어서 그 적용의 차원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이 두 원리가 적용되는 제자의 단계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訓民正音은 기본적으로 자모음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하여 加劃, 連書, 竝書, 合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더 복잡한 글자들로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각 단계에 따라서 ‘象形’이나 ‘字倣古篆’이 적용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즉 28자 중에서 ‘象形’의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와 ‘字倣古篆’의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를 분리하여 보자는 입장이다.<sup>7)</sup>

6) 실제로 訓民正音의 기원설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다른 문자(파스파, 범자, 티베트 문자, 여진 문자, 일본신대문자 등)과 관련된 기원설은 대부분 ‘象形’과 ‘字倣古篆’을 하나의 원리로 보고 訓民正音의 기원을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외에 ‘古篆’ 관련 기록이 실제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이기문(1974: 5)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金完鎭(1984)에서는 訓民正音은 한자의 古篆體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창제 후 象形의 원리로 재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로 둘째 유형의 논리에 찬성하고 있다. 兪昌均(1966: 580)에서는 ‘象形은 문자의 구성 원리를 밝힌 것이고, ‘字做古篆’의 경우에는 角形을 이룬 문자의 형태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孔在錫(1967: 53)에서는 形과 聲을 고려할 때, 聲의 방면은 “發音器官의 模象에서 그 소리를 표시하려 한 것”(상형)이고 “字樣은 漢字의 古篆에서 參照”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때의 ‘古篆’은 ‘起一成文圖’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부호라고 보았다.<sup>8)</sup> 權成基(1982: 10-12)에서는 자음에 대해서만 논하면서 ‘象形’은 내적구성을 밝힌 것으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음을 의미하며, ‘字做古篆’은 외적형태로 正方形의 篆字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항(2003: 175)에서도 ‘象形’으로 새 글자를 만든 것이고, ‘字做古篆’의 ‘古篆’은 한자 글자 모양의 한 가지로 보고 있다. 셋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경우도 있다. 최현배(1982: 632)의 경우에는 ‘象形’과는 달리 ‘字做古篆’이 음절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古篆’과의 관계 논의

를 들 수 있는데 ‘字做古篆’이라 한 것에 대해 유생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구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延吳鏞(2000: 292)에서는 ‘古篆’라는 표현에 대해 書體의 ‘篆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8)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象形’은 ‘六書’의 ‘象形’과는 다른 것이며, 기본자의 글자 모양 또한 古篆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기본자의 자형과 관련하여 타문자와의 유사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하학적 문형들은 당연히 점, 원, 직선, 그리고 이러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삼각형 등의 몇 가지 도형 정도로 보아야 한다. 이는 어느 문자의 형태를 원용했다기보다도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형들이므로 이와 관련한 유사성을 들어 기본자의 모방을 논의하는 것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에서 차이를 보인다.<sup>9)</sup> 安秉禧(1990)에서는 기본자 조성은 象形, 기본자 증성은 指事, 가획자 조성은 形聲, 합성자 증성은 會意의 방법이 쓰인 것으로 보았으며, 홍윤표(2005)에서는 ‘象形’에 대해서는 기본자를 만드는 원리로 보고, ‘字做古篆’에 대해서는 기본 글자 이외의 글자를 만드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sup>10)</sup>

본고에서는 우선 둘째와 셋째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셋째 방식으로 설명한 견해 중 그 대표라 할 수 있는 홍윤표(2005)의 설명을 보면, ‘象形’은 기본자(ㄱ, ㄴ, ㄹ, ㅅ, ㅇ, ㅁ, ㅂ, ㅅ, ㅈ, ㅊ, ㅋ, ㆁ)의 制字 원리로, ‘字做古篆’은 그 외의 다른 글자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원리로 파악하고 있다. 홍윤표(2005: 54-58)에서는 鄭樵의 ‘六書略(通志 권34)’의 ‘起一成文圖’ 뒤에 나오는 ‘因文成象圖’를 보이면서 이러한 ‘因文成象圖’가 제시하는 방법에서 ‘字做古篆’의 의미를 찾고 있다. ‘因文成象圖’는 ‘文’<sup>11)</sup>으로부터 다른 문자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그 방법이 21가지에 이른다.<sup>12)</sup> 그리

9) 물론 이 경우에도 자형의 유사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둘째 방식의 ‘字做古篆’ 논의와 큰 차이는 없다.

10) 이 외에 김주필(2005: 94)에서는 ‘象形’은 문자의 制字 방법을 말한 것이고, ‘字做古篆’은 소전(전서)의 운용 방법 또는 문자 형성 방법을 말한 것으로 보아 둘째와 셋째 방식이 혼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11) 일반적으로 중국의 문자학에서 ‘文’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문자를 의미한다. 즉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單體를 말한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字’는 몇 가지의 ‘文’이 이루어져 만들어진 複體를 가리킨다.

12) 홍윤표(2005: 56~58)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하나의 전서에서 다른 전서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20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9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 21가지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邪正’이다. 이 ‘邪正’의 설명을 보면 기율어진 ‘X’를 바르게 하여 ‘+’로 만들거나 바르게 된 ‘+’를 기율여 ‘X’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8) 從衡’과 ‘(9) 內外中間’ 사이에 ‘邪正’이라는 방법을 하나 추가해야 한다. 또한 원문의 내용으로 보아 방법의 이름 중 ‘(7) 近’과 ‘(8) 遠’의 경우

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기본자를 바탕으로 다른 문자를 制字하는 방식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因文成象圖’의 ‘加’나 ‘微加減’의 방법으로 訓民正音의 ‘加割, 合用, 連書, 竝書’와 같은 방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방법에 대한 ‘因文成象圖’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6-㉞) 有加取一加一爲二 二加一爲三 二加二爲三 百加百爲百 爻加爻爲爻 山加山爲山 水加水爲水  
 ㉞) 有微加減取可ノ爲延減ノ爲延 …… 加一爲王減一爲土

홍윤표(2005)에서는 가획자와 병서자, 연서자에 해당하는 訓民正音 자모가 모두 (6가)의 ‘加’의 원리에 의해 制字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加’의 방법은 訓民正音에서 획을 더하는 ‘가획’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선 訓民正音의 경우에는 ‘加’에서와 같이 ‘文’에 ‘文’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sup>13)</sup> 訓民正音의 가획자들은 기본자에 획이 더해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더해진 획이 ‘文’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因文成象圖’의 ‘加’에서 더해진 ‘文’은 그 위치가 기존의 ‘文’ 위쪽이나 아래쪽,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訓民正音의 가획자 중에서 ‘ㄴ, ㄷ, ㅈ, ㅊ, ㅌ, ㅍ, ㅎ, ㅇ’과 각자병서자의 경우에는 그 배열 위치로 보아 ‘加’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그러나 訓民正音의 ‘ㅋ, ㆁ’ 등에서는 더해진 획의 위치가 상하나 좌우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

에는 각각 ‘近取’와 ‘遠取’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 홍윤표(2005: 61)의 각주 3)에서도 이 사실을 명시한 바 있다.

14) 물론 이 경우에도 ‘ㄴ, ㄷ, ㅈ, ㅊ, ㅌ, ㅍ, ㅎ, ㅇ’은 ‘因文成象圖’의 ‘加’와는 달리 서로 다른 ‘文’이 결합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 역시 ‘加’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병서의 경우에는 ‘加’의 방법뿐만 아니라 ‘內外中間’의 방법으로도 형성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因文成象圖’에서 ‘○’를 그 안에 다시 넣어 ‘◎’ 모양을 만들거나 옆에 나란히 놓아 ‘oo’ 모양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 위치한다.<sup>15)</sup> 이렇게 더해진 획이나 ‘文’이 기존의 ‘文’ 중간에 삽입되는 방식에 대해서 ‘加’에서는 설명한 바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나)의 ‘微加減’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微加減’에 의해 단지 하나의 획(-)이 더해지는 것이라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ㄱ’이 ‘ㄴ’이 되는 과정은 종획(從劃) 두 개가 가해진 것인데 ‘因文成象圖’의 ‘微加減’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획을 더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말 그대로 ‘微加減’은 작은 획 정도를 더하고 빼는 것인데 현대 書體의 경우 ‘ㅋ’과 같은 경우 ‘ㄱ’에서 가획된 획이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訓民正音 解例本의 書體로 보아서는 가획된 획을 작은 획으로 볼 수 없다.<sup>16)</sup> ‘ㄹ’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sup>17)</sup> 또한 합용병서자와 연서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加’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같은 글자를 상하로 적는 것이다. 즉 各字竝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합용병서자와 연서자(ㄹ, ㄱ, ㅍ, ㅎ, ㅇ 등)는 ‘加’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모음의 制字 과정에 대해서 홍윤표(2005: 64)에서는 ‘因文成象圖’의 ‘到’와 ‘反’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到’는 ‘文’을 상하로 뒤집어 놓는 것을 말하며, ‘反’은 좌우를 뒤집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ㄱ, ㄴ, ㄷ, ㄹ, ㅈ, ㅊ, ㅋ, ㆁ, ㅋ’

15) 홍윤표(2005: 61~63)에서는 ‘ㅋ’과 ‘ㆁ’만을 ‘중’에 가획한 것으로, ‘ㄹ’의 경우에는 ‘上’에 가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ㄹ’에 대해서는 “‘ㄹ’에 ‘ㄱ’을 微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6) 굳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는 방식을 설명하자면 각주 14에서 밝힌 ‘因文成象圖’의 ‘內外中間’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같은 ‘文’만을 반복하는 예만 제시될 뿐 다른 ‘文’을 넣는 방식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17) 홍윤표(2005: 62)에서는 ‘ㄹ’에 대하여 우선 ‘ㄱ’에서 ‘ㄴ’으로 가획하고 이것에 다시 아래에 가획하여 ‘ㅁ’를 만든 후, 이를 다시 90도 회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위와 아래에 모두 ‘加’를 한 예가 ‘因文成象圖’의 ‘加’에서는 제시된 바가 없다.

의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즉 ‘ㄱ, ㅋ’를 ‘到’하여 ‘ㄷ, ㅌ’를 얻고, ‘나, ㄴ’를 ‘反’하여 ‘ㄱ, ㅋ’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런데 기본 모음 ‘·, 一, ㅣ’에서 ‘ㄱ, ㄴ, ㄷ, ㄱ’의 초출자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因文成象圖’의 방법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다.

사실 ‘因文成象圖’의 방법을 홍윤표(2005)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이용한다면 굳이 그 적용 대상을 訓民正音의 기본자 이외로 제한할 이유도 없다. 訓民正音의 기본자 중 ‘ㄱ, ㄴ’은 ‘因文成象圖’의 ‘曲直’의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며,<sup>18)</sup> ‘ㄷ, ㄱ’은 ‘因文成象圖’의 ‘方圓’<sup>19)</sup>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ㅅ’의 경우에는 ‘ノ’ 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相向’의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sup>20)</sup>

이미 ‘象形’ 관련 내용이 訓民正音 28자 모두에 해당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制字 단계를 분리하는 이러한 가정이 설득력을 갖기가 더욱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訓民正音에서 제시한 ‘因聲加劃’의 내재적 원리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들의 결합을 넘어서는, 소리와 관련된 보다 고차원적인 논의이므로 이를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象形’과 ‘字做古篆’을 制字 과정의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18) ‘曲直’은 굽은 것을 펴거나 펴져 있는 것을 굽히는 방식으로 制字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ㄱ, ㄴ’의 경우에는 ‘ㅣ’나 ‘一’에 각각 ‘一’나 ‘ㅣ’ 획이 추가된 것으로 보면 ‘加’로 설명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19) ‘方圓’은 모가진 것은 둥글게 하고 둥근 것은 모가 지도록 하는 制字 방법이다. ‘因文成象圖’ 원문에서는 ‘有方圓取圓○爲○方□爲○’라고 설명하고 있다.  
 20) 사실 ‘因文成象圖’에서 ‘相向’과 ‘相背’는 서로 글자들이 마주보게 배치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기본이 되는 글자가 왼쪽에 있으면 ‘相向’이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相背’라고 보고 있다. 또한 ‘離合’은 ‘文’을 서로 띄거나 붙여 문자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원문을 보면 ‘有離合取離人爲八合八爲人’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서 관련 기록에서 ‘字’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음절을 구성한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다. 실제로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字’를 경우에 따라서는 음소를 나타내는 자모로, 혹은 자모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음절을 이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 7-㉞) 初聲凡十七字 - 制字解
- ㉟) 中聲凡十一字 - 制字解
- ㊱)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 制字解
- ㊲)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 合字解

(7가, 나)의 ‘字’는 분명히 자모를 의미하는 것이며, (7다, 라)의 ‘字’는 음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訓民正音에서는 ‘字’에 대해 ‘자모’와 ‘음절’이라는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두 개념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데에 ‘字’를 쓴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古篆’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때 의미하는 ‘字’는 초중종성이 결합한 ‘字’이기보다는 訓民正音의 자모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인 (5가)를 보면 “是月上親製諺文二十八字 其字做古篆”이라 하여 ‘二十八字’를 언급한 후에 바로 ‘字做古篆’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라는 설명이 나온다. 선행하는 ‘字’가 자모라면 뒤에 나오는 ‘字’는 음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其字做古篆’의 ‘其字’가 지시하는 것이 선행하는 ‘字’에 대한 것이라 할 때, ‘字做古篆’의 ‘字’가 자모라는 해석에 큰 무리가 없다. 또한 (5나)에서 “字形雖做古之篆文 用音合字”라 하여 음소 결합을 통해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이 역시 ‘字’를 자모로 보아야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sup>21)</sup> 결국 ‘字’는 자모와 음절이라는

21) 이 기록에서 ‘文’이 쓰인 것도 單體로서의 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두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이고는 있지만, ‘古篆’ 관련 기록의 문맥에 따르면 ‘字做古篆’의 ‘字’를 자모로 보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sup>22)</sup>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古篆’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古篆’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바로 漢字의 書體 ‘小篆’으로 보는 입장이다. 또한 ‘古篆’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이전에 존재했던 문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는 그 古篆의 정체에 따라 ‘범자, 몽고자(파스파), 여진문자’ 등 다양한 문자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혼란은 訓民正音 解例本에 이에 관한 설명이 빠진 채 정인지의 서문과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에서만 관련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sup>23)</sup> 그런데 ‘象形’의 의미를 고려하고 이러한 적용 대상이 28자 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字做古篆’이 기존 문자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라는 방식의 설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결국 주변의 기존 문자에 대한 기원설을 ‘字做古篆’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면 ‘字’는 자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字’에 대한 해석은 訓民正音 창제 관련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덕무의 ‘靑莊館全書’에서 “訓民正音初終聲通用八字皆古篆之形也”라고 한 부분을 보아도 ‘字’를 자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둘째 가설과 관련하여 최현배(1982)에서 음절을 이룬 것을 ‘字’로 보아 ‘古篆’의 자형과 관련시킨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3) 姜信沆(2003: 196~201)에서는 정인지의 서문과 최만리 등의 상소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姜信沆은 최만리 등의 상소에 대해서 “정인지 서문 내용을 일일이 반박한 듯한 항목이 상당히 많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바뀐 생각해 보면 정인지의 입장에서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를 의식하고 서문을 지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만리 등이나 정인지의 기록이 서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논리라기보다는 그 내용으로 보아 서로가 새로운 문자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인지 서문에서 기존의 한자가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본 최만리 등의 상소 내용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는 문제점의 극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해석 방식은 ‘古篆’을 말 그대로 ‘古篆’, 즉 옛 篆書로 보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순히 ‘古篆’에 대한 모방이라고 해석하면 다시 ‘象形’의 원리와 충돌을 일으킨다. ‘古篆’ 자체가 ‘象形’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최만리 등의 상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소의 기록 “字形雖做古之篆文”을 살펴보면 이때의 ‘古篆’이 ‘古篆’ 자체를 모방한 것이라기 보다는 ‘古篆’의 자형 즉, ‘小篆’의 書體를 모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古篆’과 관련된 또 하나의 기록인 세종실록에서 ‘其字做古篆’ 운운한 내용 역시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書體에 대한 평가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訓民正音 창제 당시 최만리는 ‘부제학’으로 사실상 집현전의 책임자라 할 수 있었으나 상소 기록에 나타난 것과 같이 訓民正音의 자모 수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訓民正音의 창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록의 사초를 작성하는 사관들 역시 訓民正音 창제 관련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訓民正音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다분히 인상 평가의 수준에 그치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 두 기록에 언급된 ‘古篆’은 모두 訓民正音의 본질적 制字 원리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sup>24)</sup>

그럼 과연 ‘古篆’의 書體가 訓民正音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俞昌均(1966)에서는 角形의 차용과 관련된 것으로 ‘古篆’을 보았고, 孔在錫(1967)의 경우에는 ‘古篆’은 가장 간단한 자체, 즉 기본 형태를 참고한

24)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정인지의 서문에서 다시 ‘古篆’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訓民正音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 평가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정인지의 서문에서만 언급될 뿐, 구체적으로 訓民正音의 制字解 등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權成基(1982)에서는 발음기관의 ‘象形’이 주로 곡선의 모양을 갖게 되므로 ‘古篆’을 통해 자형을 方形으로 바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字做古篆’에 대해서 ‘古篆’을 기본 형태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자형의 문제로 다루는 견해가 강하며 그 자형은 주로 ‘角形’, ‘方形’이라는 설명을 들어 자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일정한 문제가 있다.

‘古篆’이 음절이 아니라 자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古篆’이 ‘角形’ 또는 ‘方形’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訓民正音 28개 자모는 모두 ‘角形’이나 ‘方形’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자음자의 ‘ㅇ, ㅎ, ㅎ, ㅇ’과 모음자의 ‘·, ㅡ, ㅣ’ 등의 경우에는 그 문자의 자형을 ‘方形’으로 보기 어렵다.<sup>25)</sup> 訓民正音의 자모 낱자의 경우에는 方形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이를 일반적으로 方形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자모를 모두 方形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굳이 그 자형을 끌어들이기 위해 ‘古篆’을 운운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당시 쓰고 있던 한자 자체 역시 方形이기 때문이다.<sup>26)</sup> 오히려 ‘字做古篆’보다는 ‘字做文’ 등의 표현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方形’이 과연 篆書體의 대표적인 특징인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가 이 문제에 대해 큰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方形’은 篆書體의 특징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오미영 역(2006: 6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篆書體’로 불

25) 특히 訓民正音 解例本에 나타난 모음자는 현재와는 달리 ‘·’와 같이 둥근 점과 선으로 그 자형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을 ‘方形’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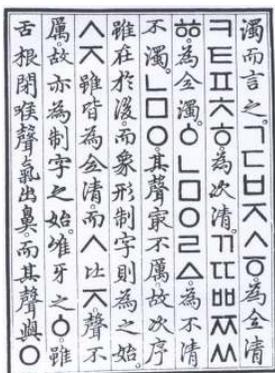
26) 물론 이 경우 方形의 한자는 단체로서의 ‘文’뿐만 아니라 복체로서의 ‘字’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리는 ‘小篆體’는 “모든 필획이 일정한 두께로 쓰여서 유려한 곡선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종의 장식서체로서 “하나의 필획에 두께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지금 서양화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넓적한 붓으로 썼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古篆’의 특징은 오히려 ‘方形’이나 ‘角形’이 아니라 ‘유려한 곡선’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림-1>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한자의 書體

조선의 한글 문헌 판본체를 연구한 박병천(2000: 26)에서도 “고전(古篆)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한글 최초의 글자인 훈민정음 원본의 글자꼴은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입수필 부분이 원형이며, 가로·세로 서선의 방향을 수평·수직으로 나타냈다. 또 획끼리의 접점은 모두 굵게 붙여서 나타냈고, 서선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은 한자의 小篆體와는 다르게 각이 생기게 나타냈다.”라고 하면서 각이 나타난 것이 오히려 ‘小篆體’와 다른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訓民正音과 ‘古篆’의 관계는 書體의 ‘角形’이나 ‘方形’이라는 특징이 아니라 하나의 필획의 굵기가 일정하다는 점이 된다. 실제로 <그림-2>와 같이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한자와 訓民正音을 다른 書體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는데 자모의 설명에 쓰



<그림 2> 訓民正音의 書體

인 書體는 그야말로 ‘角形’이나 ‘方形’으로서의 篆書가 아니라 동일한 굽기의 획으로 기록된 篆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古篆’과 관련하여 ‘角形’이나 ‘方形’을 그 특징으로 설명하고 이를 訓民正音과 관련시킨 논의는 타당성이 없다. 篆書體의 본질이 ‘角形’이나 ‘方形’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를 한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角形’이나 ‘方形’을 그 특

징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角形’이나 ‘方形’이 당연히 篆書體의 특징일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角形’이나 ‘方形’의 書體는 篆書보다는 오히려 隸書나 楷書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그렇다면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篆書體의 특징을 왜 간과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마지막 의문점이다. 篆書는 신하들이 쓰는 隸書와 달리 황제의 문자를 상징했기에 황제로부터 관직을 위임받았다는 징표로서 부여 받는 印章에는 篆書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일반 도장으로 확대되어 篆書體가 도장의 書體로 일반화된 것이다.<sup>28)</sup>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도장 속의 書體는 도장의 모양에 따

27) 오미영 역(2006: 87~88)에서는 ‘篆→隸→楷’라는 書體의 변천이 ‘고필古筆→진필秦筆→금필今筆’이라고 하는 붓의 진화에 부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붓의 변화는 결국 書體에서 획의 두께 변화를 유발한다.

28) 오미영 역(2006: 109~110)에서는 “황제로부터 하나의 관직을 위임받는다

라 글자 자체가 ‘方形’이나 ‘角形’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이때의 자형의 ‘字’는 음소 자모와는 상관없이 漢字의 음절자를 기준으로 한 자형을 이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밝힌 單體로서의 ‘文’도 하나의 음절자요, 複體로서의 ‘字’도 하나의 음절자이므로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

결국 書體로서의 ‘古篆’의 특징은 인장에 의해 만들어진 반사적인 속성보다는 필획의 굽기가 일정하다는 본질적인 篆書體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字做古篆’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書體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와 관련된 우수성과 과학성은 ‘象形而字做古篆’보다는 ‘加劃, 竝書, 連書, 合用’의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문자의 음소적 특성과 자형의 변화를 결부시켰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의 문자 制字 과정에서 고려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訓民正音 解例本에 나타나는 ‘象形而字做古篆’에 대한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象形’과 ‘古篆’의 의미를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訓民正音에서 언급하고 있는 ‘象形’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문자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象形’의 의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중국의 문자학에서 영향을 받아 訓民正音이 制字되었고, 이러한 과

는 ‘징표’로서 인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자는 전서체篆書體로 쓰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착된 결과로서 개인의 도장에게까지도 전서체가 사용되게 되었고 그러한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에서 ‘六書’의 원리 중의 하나인 협의의 ‘象形’이 制字 원리로 원용되었다는 것은 訓民正音 解例本의 내용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訓民正音에서의 ‘象形’은 ‘일정한 사물의 모양을 본뜨다’라는 광의의 ‘象形’으로 쓰인 것이다.

둘째, 소위 ‘字倣古篆’에서 ‘古篆’은 중국의 書體 중 小篆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書體의 특성은 ‘方形’이나 ‘角形’이 아니라 획의 굵기가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字倣古篆’은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로 보기 어렵다. ‘字倣古篆’은 訓民正音 制字와 관련하여 書體의 관련성을 언급한 단편적인 논의에 불과하다.

셋째, 訓民正音에서 언급한 加劃, 竝書, 連書, 合用의 자형 구성 방법은 소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형의 복합을 통한 새로운 자형 구성 방식과 관련된 중국의 문자학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원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세종대의 조선 문자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 孔在錫, 「한글 古篆起源說에 대한 한 考察」, 『중국학보』7, 한국중국어학회, 1967, pp.45 ~ 54.  
 權成基, 「訓民正音 字形起源에 關한 一考察」, 『한성어문학』1,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2, pp.235 ~ 249.  
 김슬옹, 「‘훈민정음’ 문자 만든 원리와 속성의 중층 담론」, 『한민족문화연구』21, 한민족문화학회, 2005, pp.95 ~ 135.  
 金完鎭, 「訓民正音 子音字와 加劃의 原理」, 『어문연구』7·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5, pp.186 ~ 194.  
 金完鎭, 「訓民正音 創制에 關한 研究」, 『한국문화』5, 서울대학교 규장

- 각 한국학연구원, 1984, pp.1 ~ 19.  
 김주필, 「중국 문자학과 ‘훈민정음’ 문자이론」, 『인문연구』4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pp.69 ~ 103.  
 문효근, 「‘훈민정음’ 제자 원리」 『세종학연구』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 pp.3 ~ 276.  
 안명철,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육서(六書)」, 『우리말글』38, 우리말글학회, 2006, pp.43 ~ 58.  
 安秉禧, 「訓民正音의 制字原理에 대하여」, 『국어학논문집』(강신항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태학사, 1990, pp.135 ~ 145.  
 延昊鐸, 「訓民正音의 制字 起源 再論-古篆의 正體 把握을 中心으로」, 『사회언어학』8-2, 한국사회언어학회, 2000, pp.281 ~ 300.  
 俞昌均, 「‘象形而字倣古篆’에 對하여」, 『진단학보』29-30, 진단학회, 1966, pp.567 ~ 586.  
 이기문,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2, 1974, 국어학회 pp.1 ~ 15.  
 홍윤표, 「訓民正音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46, 국어학회, 2005, pp.53 ~ 66.

### 2. 단행본

- 姜信沆,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박병천, 『조선초기 한글 판본체 연구』, 일지사, 2000.  
 이정민 외, 『언어학 사전』, 博英社, 1987.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1982.  
 陸宗達, 『說文解字通論』, 1978(金權 옮김, 『說文解字通論』,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藤枝晃, 『文字の文化史』, 岩波書店, 1971(오미영 옮김, 『문자의 문화사』, 박이정, 2006.)  
 Robinson, Andrew., *The Story of Writing - Alphabets, Hieroglyphs & Pictograms*, Thames & Hudson, 1995(박재욱 옮김, 『문자 이야기-고대에서 현대까지 명멸했던 문자들의 수수께끼』, (주) 사계절출판사, 2003.)

A Study on the meaning of ‘sang-hyeong-i-ja-bang-go-jeon’  
in Hun-min-jeong-eum

Park, Hyeong-woo

This paper is to try interpretation of difficult phrases in *Hunminjeongeu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sang-hyeong-i-ja-bang-go-jeon(象形而字做古篆)’ from a new point of view. For solving this problem, we investigated former study thoroughly.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

Firstly, in *Hunminjeongeum* sangh-yeong(象形) is not same meaning as pictograph(象形) of ‘yukseo(六書, six categories of Chinese characters)’. In *Hunminjeongeum* the real meaning of ‘sang-hyeong’ is only to copy a external shape of something.

Secondly, in *Hunminjeongeum* ‘Go-jeon(古篆)’ means sojeong style as a ancient style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The characteristic point of this styel is to maintain the fixed thickness of strokes in a Chinese character.

Thirdly, in *Hunminjeongeum* the new inventing principle(stroke addition, parallel writing, top and bottom writing, combination writing etc.) is more excellent than the principle of Chinese graphonomy because the new principle creat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pe of a character and the characteristic of phoneme.

Key words : Hun-min-jeong-eum(訓民正音), the principle of inventing Hun-min-jeong-eum, pictograph(象形), go-jeon(古篆), sang-hyeong-i-ja-bang-go-jeon(象形而字做古篆)

박형우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전화번호 : (043) 230-3549  
전자우편 : phwgs@knue.ac.kr

이 논문은 2008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